

		날짜	2013년 9월 16일 월요일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 * 첫 번째 날*									
예배의 역사									
1. 구약의 예배 구약의 4000년 동안에는 안식일날 무엇을 했는고 하니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중심으로 항상 양잡고 소 잡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왜, 그렇게 제사를 드렸느냐? 원인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되었기 때문에 타락의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타락했기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돌이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을 변제의 기간이고 상징, 현재의 기간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상당히 율법적이고 너무 고통스러웠던 역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좋은 경사의 날, 축제의 날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제사 자체는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슬플 수 밖에 없고 엄격하고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예배 드릴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2. 신약의 예배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 잘 듣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커서 말을 잘 들으니까 직접 아버지와 대화하고-종들은 종들대로 놔두어 버리고-아들과 아버지가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000년 후부터는 예수님이 직접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중심한 뜻이 떠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날 어떻게 했느냐? 보통 구약에서는 안식일 날 제물 드리고 제사 지내러 가지만, 우리 신약시대 때는 제사 지내러 간다는 소리는 안 했지요? 어떻게 하고 왔습니까? “예배드리러 간다”하고 왔을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휘장을 가려놓고 그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만 제물을 드렸는데 그것을 예수님때 와서 와장창 찢어버렸습니다.(마27:51)휘장을 찢고 확 터놓아서 서로 보고 서로 즐겁게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마27:51)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 현실에서 보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성전은 위엄스러운 곳이다. 성전을 접할 땐 두렵고 떨림으로 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서 강대상 옆에만 가면 텅텅떨면서 왔다가곤 합니다. 구약처럼 제사지내는 것은 없어졌지만 신약시대도 굉장히 엄격하고 엄숙합니다.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다는 것뿐이지 여전히 엄숙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신 신약의 제도가 본래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예배드리러 오지 않고, 가서 병든자를 고쳐주고 위로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어찌 감히 병든자 아픈 자를 위로해 주고 돌아다닐 수 있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안식일 날은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환희의 날이니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사를 원하기보다 자비를 원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이후처럼 예수님께서 세운 안식일의 법도는 혼인집의 역사였습니다. 3. 성약의 예배 안식일은 바로 축제의 날이고, 혼인 잔치입니다. 안식일을 확대시킨 세계는 천 년 동안 왕노릇하고, 천 년 동안 하나님역사가 펴나가는 시대와 똑같습니다. 구약시대는 제물시대이고, 신약시대는 예배시대이고, 새시대 역사는 바로 혼인잔치의 역사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이 끝나면 일요일은 축제의 날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축제의 날이요, 믿는 사람도 축제의 날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축제의 날이요, 믿는 사람들도 축제의 날, 놀러가고 낚시터로 가고, 모두 노는 날입니다. 일요일날 어디 가서 가만히 있으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법으로 볼 때도 이 안식일은 곧, 축제의 날이고, 혼인잔치와 같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무섭고 두려움으로 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하는데 무섭고 두려움으로 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하는데 무섭고 두려움으로 달달 떨면서 어떤 제도 속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날은 몰라도 결혼식 날 만큼은 기쁘고 즐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58장 13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와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은 주일날만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풀타임입니다. 사사로운 말하고, 쑥덕공론하고... 이런 것들이 다 안식일 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기> * 구약, 신약, 성약의 예배를 무엇에 비유했는지, 그 때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했는지요? <table><tr><td>구약</td><td></td></tr><tr><td>신약</td><td></td></tr><tr><td>성약</td><td></td></tr></table> * 지금의 시대에 맞는 예배의 모습과 자세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구약		신약		성약	
구약									
신약									
성약									

		날짜	2013년 9월 17일 화요일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 * 두 번째 날* 예배의 진정한 의미*			
1. 하나님을 만나는 날 안식일은 참으로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10년 동안 짝사랑한 사람이 그 날 만나자고 해보십시오. 얼른 다른 것을 다 제치고 가지 않겠습니까? 자기 개인으로 무용 발표회나 노래 발표회가 있다고 해도 거기에 가겠습니까? 그것을 제치는 한이 있더라도 애인을 만나러 가지요. 짝사랑을 10년 동안 해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다른 것을 할 때는 척척 안식일을 잘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그렇게 접어 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안식일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항상 받았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받았습니다.		5. 보급을 받는 날 또 주일날은 무슨 시간이고 하니, 전쟁터에서 작전하다가 탄약을 다시 받고, 총을 다시 받고, 군복을 다시 받고, 식량을 다시 받는 시간과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군인이 식량을 안 받고, 탄약을 안 받고, 실탄을 안 받고, 총이 부러졌을 때 다시 공급을 안 받는다면 무슨 힘으로 전쟁을 하겠습니까? 주일날은 그런 시간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2. 하나님과 대화하는 날 안식일 날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대화하고, 인생의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리고 마치 신랑과 신부가 대화하듯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령하고 명령하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 집에서 신부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것도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랑, 신부의 입장이 못 되고, 종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종들에게는 역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가 못 되기 때문에, 곧 그날의 주인공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쪽으로 가면 저도 회개하라는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가 별로 없지요?		6.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듣는 날 주일날은 자기에 대한 모든 비밀을 말해 주는 날입니다. 자기 상황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날입니다. 곧 주일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날과 같으며 애인을 만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을 안 지키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주 웃기게 되고 썩어 앙꼬가 빠진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맛이 없는 날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중시해서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연결을 해오고 또 주일을 맞기 위해서 토요일 날 모두 와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추다가 다시금 안식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축제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말씀 들으러 가야지!” 이런 입장을 가지지 말고 “오늘 하늘을 만나서 만남의 광장을 갖는다!” 이런 입장을 가져야 합니다.	
3. 때를 미는 날 주일날은 마치 어떤 입장과 같은 고 하니, 토요일까지 끼었던 때를 미는 날입니다. 목욕탕에 폭 담궜다가 때를 슬슬 미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때를 밀면 얼마나 시원한 줄 압니까? 때가 옛가락 같이 밀려나올 때 얼마나 시원합니까? 머리 깎고, 이발하고, 목욕하고, 때를 밀면 얼마나 개운합니까? 혼자 과시하고 싶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목욕탕에 못 갔을 땐 자기 몸뚱이인데도 보기 싫지요? 혼자 있어도 자기 몸뚱이를 보기 싫습니다. 그러니 옆의 사람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일주일 한번씩 가도 꿈뚱한데 보름만에 가니까 꿈뚱하지요. 목욕탕을 일주일에 두 번 다녀야 됩니다. 적어도 두 번은 다녀야 됩니다. 수요일날 한 번하고 일요일날 한 번 하고 두 번은 다녀야 합니다.		7. 빨래하는 날 또 주일날은 빨래하는 시간과 같습니다. 일주일동안 밀렸던 것을 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래를 안 하면 냄새가 풍풍 난다는 것입니다. 빨래를 하면 여러분도 속이 시원하지요? 빨아본 여자들은 알 것입니다. 팬티로부터 시작해서 냄새나는 것을 폭폭 삶아서 박박 문지르고 싹 행귀내면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 놈을 바쁘다고 그냥 안 빨고 지나가 보십시오. 그것을 입고 돌아다니면 냄새가 나지 꿈뚱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주만 빼먹는 것이 아니라 두 주를 빼고 한 달을 빼 먹어 보십시오. 그러면 자동적으로 명단에서 누락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단에서 누락이 됩니다. 왜? 한 달 동안 애인을 4번이나 안 만나고 평크를 냈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마음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안 돌리겠습니까? 돌립니다.	
4. 말씀을 받는 날 주일날은 또 무엇을 하는 날이고 하니 한탕 먹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한번 갈비를 뜯고 실컷 먹어야 됩니다. 인생이 그래야 사는 맛이 납니다. 그런데 안 먹고 매일 에너지만 소모시켜 보십시오. 에너지를 소모만 시키고 충당시키지 않으면 무엇인가 자꾸 주저앉아 지고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그만큼 주일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불고기를 뜯는 날입니다. 내가 언젠가 불고기를 뜯는데 12인분을 뜯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사 주는 사람이 질겁을 하고 놀라더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잘 먹는데 불고기를 못 사주었다니..!” 하면서, 이와 같이 가끔 한 번씩은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구력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의 영혼들이 힘이 생기고,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8. 답안지를 주는 날 학문의 용어를 사용한다면 주일날은 답안지를 주는 날입니다. 답안지를 불러주는 날과 똑 같습니다. 답안지를 불러주었을 때 일주일동안 문제가 와도 답안지를 보면 문제가 딱딱 풀어지지 않습니까? 답안지를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날은 이런 여러 가지 종류로써 쓰여지는 귀한 날입니다.	
		9.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날 주일날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날입니다. 그 날 가서 싹 풀어 버리는 날입니다. 그 날 안 풀고 가면, 그 이튿날 더 찼찼하고 더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바깥에 나가서 재미있게 어울리고 왔어도 무엇인가 꿈뚱하고 이상하니 찼찼합니다. 그러나 주일날 교회에 와서 별로 들은 것이 없는데도 이상하니 가볍게 내려갑니다.	
		10. 용서받는 날 주일날은 죄짐을 다 없애는 날입니다. 용서 받는 날이고 사유함을 받는 날입니다.	
* 예배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앞에서 제시한 내용을 적어봅시다,			
* 그 중 가장중심이 될 만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 자신이 가장 감동받은 의미와 그 이유는?			

		날짜	2013년 9월 18일 수요일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 * 세 번째 날*			
예배드릴 때의 자세 1.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거기에도 똑같은 비유가 있습니다. 열 처녀가 있는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렸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다 처녀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 이라고 했듯이 모두 처녀 입장들입니다. 이들이 신랑을 맞으러 오는 입장과 똑같지요 그 날 신부가 신랑을 맞지, 객들이 신랑을 맞습니까? 신부 10사람이 신랑을 맞으러 갔는데 5명은 신랑을 맞이하고, 5명은 못 맞이했습니다. 준비하고 예비하지 않은 사람은 못 맞이했습니다. 왜? 뛰어다니까 다르거든. 기름이 준비 안 되었습니다. 여기서 크게 보면 유대민족을 다섯 명의 미련한 처녀로 봅니다.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너무 미워한 나머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못 맞이한 것입니다. 미워한 사람이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하와가 하나님을 못 맞이한 것은 사랑치 못함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을 못 맞이하고, 오히려 루시퍼를 맞이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하나님을 맞지, 루시퍼를 맞았을 리가 만무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기에, 사랑치 않은 것은 미움인 것입니다.(요 14:21) 그래서 못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 중에서도 제대로 못 맞이해서 다섯 명의 처녀와 같이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내 말을 지켜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다.”고 하셨습니다. 주를 따르는 자의 가장 큰 문제는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맞이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메시아를 맞이해도 사랑이 없으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했습니다. “사명자이기 때문에 맞이한다. 저 사람이 나의 지휘관이니까 맞이한다.”하면 안 됩니다. “왜 너는 나를 맞이하느냐?”하니 “지휘관이기 때문에 점심 대접했습니다.”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왜 나를 맞이하여 대하느냐?”고 했더니 “사랑하기 때문에 맞이하고 이렇게 해 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끌리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길에 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여기서의 기름이 없다는 것은 ‘사랑의 기름’이 없어 사랑의 등불을 켜지 못함으로 못 맞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신랑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맞을 때 사랑 때문에 맞는 것입니다. 돈도, 부귀도, 영화도 아니고, 오직 사랑 때문에 신부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영원히 살기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맹세하며 후회 없이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가 사랑하기에 같이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 1. 전주 예배의 가장 첫 순서로 예배 자들은 마음을 정리하고 자세를 가다듬으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결코 좌석을 정돈하거나 예배의 시작을 기다리면서 무료함을 메꾸는 정도의 시간이 아닙니다. 2. 개회찬송 개회찬송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개회찬송으로 예배를 여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3. 예배에의 부름(개회선언) 회중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는 말로 주로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립시다’는 선언과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성구를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중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는 시간입니다. 4. 신앙고백 신앙고백으로 사도신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신경은 4세기 이전에는 사도신조라고 불려졌고, 이것이 지금의 사도신경이 된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인간이 하나님께 고백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5. 대표기도 이 기도는 주로 목회자이외의 성도들 중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역시 회중을 대표하는 공식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회중 전체를 대변하는 기도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성경봉독 성경봉독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도들이 직접 받아서 봉독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그 메시지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임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말씀이 우리를 속에서 역사 하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봉독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배의 순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7. 말씀전함(설교) 예배의 절정이 되는 시간입니다. 설교란 예배 속에서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들에게 다시 그들의 언어로 풀어주고 그들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현상화 시키는 것입니다. 8. 찬양 예배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찬양대의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지극히 아름다운 찬양이며, 예배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마음의 그릇을 준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9. 봉헌 단순히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고, 자신이 수고한 열매를 드리는 영적이고, 물질적인 모든 것을 뜻합니다. 10. 광고 성도들에게 교회의 상황을 알리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11. 축도 및 주기도문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활을 강조하고, 사명적 존재로서의 삶을 위한 복의 선언입니다. 구약에서는 민수기 6장 22절에서, 신약에서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축도 주례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끝마치기도 합니다. *꼭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예배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은 형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 예배드릴 때의 자세중 자신의 예배모습과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부족한 모습과 보충해야 할 모습을 적어봅시다,			
* 예배의 순서를 적어봅시다,			
* 이 순서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모습입니다, 앞으로 21세기에 나아 가야할 신 감각적이고 신세대적인 예배의 모습을 적어봅시다,			

		날짜	2013년 9월 19일 목요일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 * 네 번째 날*			
부활에 관한 성경구절과 주석 <사 26:19>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육적부활을 주장하며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대망하고 있는데 현실의 신앙관을 통해서 옛날 조상 때부터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골 3:12-14> “주 여호와와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나온다고 했지요? 이것을 볼지라도 육신부활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단 12:2> “땅의 티끌가운데 자는 자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지금 보았듯이 구약에서 부활에 대해 크게 볼 수 있는 성경구절이 이 세 군데입니다. 어거스틴(교부철학자) - 현재의 신체와 부활한 몸은 동일하다. 토마스 아퀴나스 - 부활의 몸은 분명한 실체이나 빛나며 늙지 않는 몸이다. 종교개혁자들 - 현재의 몸과 같은 것으로 부활한다. 볼트만(현대신학자) - 역사적으로 전혀 존재할 수 없는 사건이므로 부활을 믿지 않는다. 브루너(현대신학자) - 부활은 역사가들이 추가한 설화이다. 칼빈 -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비록 죽은 자와 같을 지라도 죽음 속에서도 살 것이며, 그들의 사망 후에도 다시 부활하리라는 뜻이다. 박운선 -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최후의 소망이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창1:1)에서도 가질 수 있다. 아무것도 없던 가운데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지 못하시랴.	죽음의 의미 <창2:17>하나님께서 동산의 각종 나무는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도 따먹고 하와도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기에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죽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창5:5>보면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다고 했습니다.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따먹었는데도 죽지 않고 몇 백 년이나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인다고 했지만 차마 인생이 불쌍해서 그냥 놔두었을까? 그것이 아닙니다. 따먹자마자 죽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이 죽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전 15:22>에 보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언급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란 단어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무덤을 열고 나오리라!” 구약이라는 무덤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 죽음의 잠자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 시체들!” 시체라고 하니깐 육만 생각하는데, 영도 죽으면 하늘 영계에서는 하나님과 끊어진 자를 시체로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을 가지고 따지십니다. <골18:20>을 보면 “죄를 범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영혼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었기에 구약 4000년 동안 부활을 바랬던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 <요 5:29>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부활은 사망권에서 생명권으로 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부활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부활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몇 명이나 살려놓고 돌아가셨냐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라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때까지 수백, 수천만의 엄청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망권에 있는 영혼들을 생명권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해서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육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러 왔다면 베드로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사망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드레도, 요한도, 사마리아 여인도 사망권에 있었는데 주님께서 전도하여 생명권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죽은 자를 부활시킨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마8:21-22>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주님을 따라 다니다가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고 장사 지내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하이고, 나를 따라 다니다 너의 아버지 죽는 것도 몰랐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놔두고 너는 나를 따라 오라!”했습니다. 둘 다 죽은 자의 표현을 썼는데 앞의 죽은 자는 진짜 육신이 죽은 자, 뒤에 죽은 자들은 동네 사람들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곧 믿음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죽은 자로 보면서 설교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더욱 근본으로 본다면 당시 주님과 관계되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똑똑히 볼지라도 영적인 죽음에 대한 부활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를 적어봅시다, * 이를 자신에게 적용시킨다면, 어떤 의미로 와 닿을 수 있을까요?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자세에 대해 적어봅시다, *앞으로 다가올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께 무엇을 선물하고 싶은가요?			
뒷면 참조 - 추수감사절 ->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

1) 평화와 사랑과 이상세계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날

구약 4000년 동안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은 진정한 평화와 사랑을 원하며 기쁨과 이상세계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유대나라 작은 고을 베들레헴을 통하여 평화와 사랑과 이상세계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평화가 어떻게 오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바라기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게 하셨습니다. 평화와 사랑은 인간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지 않은 태서부터 깨어지게 되었으므로, 누구든지 사랑과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시대를 따라 보낸 자를 사랑하고 따라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그와 더불어 평화를 이루려 하심입니다.

2) 그리스도의 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주님의 오심과 그의 나심을 찬송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수없이 오고 가고 이름 있는 자들이 많이 살다 갔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상적이고 큰 덕과 영원한 이상을 주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깨우치기도 하셨지만, 그 깊고 깊은 하늘을 깨닫도록 해 주셨고, 모르고 살던 하나님을 깨우쳐서 그를 믿게 함으로서 영원한 길을 발견하게 되고, 그의 삶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났지만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였습니다. 세상에 많은 왕들이 나타나도 그렇게 평화가 오지 못하고 하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더욱 사랑하며 부활의 신앙을 찾아야 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3) 하나님과 주님과 모든 사람을 더욱 사랑함으로 생명이 부활되는 날

어느 때보다 연말을 통해, 크리스마스를 통해,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보낸 자를 사랑하며 평화와 부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마지막 날을 잘 장식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마음도, 행실도, 호트러리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 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모든 사람들을 더욱 사랑함으로 평화와 이상의 역사와 함께 자기 생명을 부활시켜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오직 서로의 사랑입니다. 시대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라 함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도 모순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유래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의 유래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이교도들이 그 전부터 믿어오던 태양신이 있는데 고대 로마의 주교는 기독교가 이교도들을 정복했다는 뜻에서 이교의 축제일인 동지절(12월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채택했습니다. 우상숭배를 없애고 선교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 축제를 좋아하는 로마인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 공식적인 예수님의 탄생일로 전해지게 되어서 크리스마스가 유래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1월 1일, 1월 6일, 3월 24일, 5월 20일 등으로 추측되고 있지만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와 함께 오래도록 지켜 내려오는 전통과 관습이 있습니다. 촛불예배라든가,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빨간 열매가 달린 초록색 담장이라든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마구간 등이 그것입니다. 이들 관습은 비기독교적인 요소가 많은데, 이것은 본래 12월 25일이 이교도의 축일을 바꾸었기 때문에 이교도의 축일을 바꾸었기 때문에 이교도의 전통과 관습이 기독교의 관습에 그대로 남아있는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마음가짐과 자세

크리스마스에는 주님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과 사랑과 찬양과 기도와 형제우애와 화평과 충성과 절제와 온유와 인내로 심령의 트리를 걸어놓고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세계적인 크리스마스는 대개 호화찬란한 트리를 해 놓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사랑의 분위기에 젖어들며 마치 여름철에 불을 켜 났을 때 각종 곤충들이 모여들어 춤을 추며 노는 것과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이용하여 장사꾼은 장사를 하고, 노는 사람들은 놀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여행하는 사람들은 여행하며 자기 꿈만을 이루려 하며 즐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즐겁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평화와 사랑과 이상 세계를 이루게 하지 않으십니다.

1999년에 세계에서 가장 호화찬란한 크리스마스트리를 해 놓은 곳은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모두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들떠 지구촌 모든 곳에서 수천만 명이 연말 혹은 2000년 새해를 맞이 위해 프랑스가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26일 새벽, 2000km/h의 강한 강풍이 불어 크리스마스 장식용 해 놓은 나무와 수백만 주의 나무가 뿔뿔히 날아가는 대재해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된 조각 예술품들도 날아가 깨어지고 웅장한 베르사유 궁전의 아름다운 숲이 태풍에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 뉴스를 지켜본 세계 사람들은 이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냐면서 노스트라다무스의 2000년 말세의 예언을 다시 생각하며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온 인류의 거울이 되어 깨닫는 한 사건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부활된 자들에게만 평화와 사랑과 이상의 세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

<시100:4>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큰 절기가 셋 있었는데, 그것은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불리웠으며 이 수장절은 추수를 다 마치고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지키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 이하에 보면 초막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칠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 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레23:42-43>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추수한 곡식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가 끝난 가을날의 계절에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던 그 일을 회상하며 감사하라는 뜻으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즉 초막절, 곧 수장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해야 했던 일은 이 땅에서의 곡식 추수가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 다.

추수감사절의 자세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감사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온 몸을 하나님께 바친 상태에서 뜻대로 하는 감사를 해야지 제도적 입장에서 신앙을 하면 앞으로 비상적 세계에 처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인 세계를 벗어나서 보다 능동적이고 자유로운 감사생활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가도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가 얼마나 큰 물질의 보화인지 모릅니다. 물질을 장악하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와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께 큰 물질들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람 하나가 천만 원만 되고, 일억만 되고, 십억만 되고 일조만 되겠느냐? 하나님의 일의 세계는 엄청난 세계인데 이 생명들이 하나님께 온 그것이 정말로 크나큰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돈이 될 수 있고, 몸이 물질이 될 수 있으니까! 또한 몸이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알고서 백 원 한 장을 드려도 천원 한 장을 드려도 뜻을 알고 드리며 제물을 드리고 우리 몸을 가지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것이 온 제사이다. 그것이 큰 물질의 감사이고 추수감사이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가장 큰 의의는 이 땅에서 무언가 많은 축복을 받았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사실에 대한 감사가 가장 본질적인 감사의 이유인 것입니다. 올 가을의 추수감사는 뭘냐? 쌀가마니를 갖다 바칠 것이냐 콩가마니를 갖다 바칠 것이냐? 봉투 한 장 던져 놓고 그냥 가을 추수감사를 끝내고 말 것이냐? 가을 추수? 계시록 15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낫을 휘둘러 많은 포도송이를 거두고 무르익은 지 생명들을 전부 추수해서 거둬들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많은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많은 생명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서 “이게 우리의 자본입니다. 많은 생명을 하나님의 크나큰 역사의 자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들은 대로 육신을 개발해서 예술로, 말씀으로 개발하고 학문으로 개발하고, 각종각색으로 모든 다방면의 세계로 개발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무진 애를 쓰니까 개발하는 대로 쓰시옵소서” 이같이 하면 정말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적어봅시다.

*앞으로 다가올 크리스마스에는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 * 다섯 번째 날*

훈련소에서의 예배참석

작업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금지했다. 일요일이면 교회 나가는 사람만 제외하고 부대 전체가 작업을 했다. 화장실 퍼내는 일과 운동장에 풀 매는 일들이었다. 그래서 일요일이면 이렇기 싫어서 신앙생활도 안 하던 병사들이 교회 간다고 군중 인솔자가 오면 20-30명씩 따라갔다. 이를 본 지휘관들은 화가 나서 모두 믿을 수가 없다고 일절 교회에 못나가게 방침을 세워 버렸다. 아닌게 아니라 일요일이 되었는데도 아무도 교회를 보내지 않았다. 일요일 날 일하기 싫어서 교회로 피신 가는 가짜 신앙인들 때문에 정작 교회 다니는 나까지 못 가게 된 것이다. 나도 할 수 없이 작업장에 끌려가 종일 풀 매는 일을 했다. 다음 일요일은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에 나가기로 결심했다. 정말로 교회 다니는 병사들은 우리부대에서는 7명뿐이었다.

예배드리러 갔다가 탈영한 것으로 오해받다.

한 주간 동안 훈련을 받고 또 일요일이 돌아왔다. 나는 아예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일찍 군교회로 빠져 나가버렸다. 아침 주일예배를 드리고 또 기다려서 아예 일요일 저녁예배까지 드리고 가기로 했다. 공백 시간에 성경을 읽었다. 하루가 천국시간 같이 너무나 빨리 가버렸다. 금방 저녁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드렸다. 마지막 주기도문을 하며 예배를 폐하려는 순간에 누가 목덜미를 잡으면서 숨을 죽인 목소리로 나를 부르며 끌어 잡아당겼다. 그래서 “아니, 기도하는데 기도나 끝나거든 이야기 하라.”고 했다. 그러나 무조건 잡아당겨 애처롭게도 그 짧게 남은 주기도문을 못 하고 말았다. 밖에 끌려 나와 보니 나의 중대 소속 선임하사였다. 다짜고짜로 왜 탈영했느냐고 다그친다. 누가 탈영했느냐고 물으니 “너, 탈영했다고 부대에서 모두 찾고 있는 중이다”라고 했다. “무조건 교회에 안 보내줘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교회에 왔을 뿐이지 훈련소 철조망 밖에 나가지는 않았다.”고 했다. 예배가 끝나고 나온 지도자들이 모두 이 광경을 보고는, “예배드리러 다니는데 무슨 탈영이냐?”고 한마디씩 했는데 그 중 한 장교는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잘 좀 해주라고 했다.

예배 참석하여 기합 받다.

소속부대에 돌아왔다. 부대 전체가 각 내무반에서 기합들을 받고 있었다. 내가 속한 내무반에서도 차렷 자세로 기합을 받으며 훈시를 듣고 있었다. 나를 끌고 들어가 내무반 중간에 세워놓고 중대 서무계와 선임자가 뺨을 때리며 군화발로 차고 한참을 정신없이 때렸다. 기합 받는 자들이 “저 새끼 더 때려야 된다.”라고 소리를 쳐댔다. 코피가 나고 볼이 화닥거리며 앞장개이는 쪼인트를 당해서 너무 아팠다. 그러면서 다시는 교회에 가지 말라고 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안 갈 수는 없다.”고 했다 다만 다음에는 이야기를 꼭 하고 가겠다고 했다. 또 간다고 하니 또 때려댔다. 그렇지만 나는 “다른 부대 교인들은 일요일이면 다 교회에 보내는데 왜 우리 부대만 안 보내느냐고, 진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파악해서 보내줘야 원칙이 아니냐?”고 했다.

나의 기합은 끝났다. 교회를 갔기 때문에 책망만 간단히 듣고 끝날 줄 알았지 이렇게 심하게 때릴 줄은 미처 몰랐다. ‘아, 군대란 이렇구나.’ 또 하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합이 끝났을 때 내무반 훈련 동료들은 내 맞은 것을 안쓰럽게 생각하면서도 일부는 “이 새끼, 저 새끼.”하면서 욕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중대장실 서무계의 도움으로 예배를 매주 드리게 되었다.

그 중에서 어느 사람은 “너 군대 들어오기 전에 어느 교파 어느 교회 다녔느냐?”고 묻는다. 장로교, 석막교회에 다녔다고 하니 석막리가 어디 붙어있느냐고 한다. 자기는 영락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같이 알고 지내자고 나를 위로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중대장실에 있는 서무계가 나를 부른다고 해서 갔다. 어제 나를 때리고 혼을 낸 중대인원을 총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서무계다. “어제는 군 법칙상 손을 댄 것이지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다.” 서무계는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군에 오기 전에 어느 교회에 다녔느냐고 묻는다. 석막 장로교회라고 시골에서 다녔다고 했다. 직책은 무엇이었느냐고 하기에 주일학교 부장직도 하고 청년부도 맡아 일을 하다 군대에 오게 되었다고 했다. 실상 자기도 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임무 때문에 교회에 못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교인이라고 하니 참 반가웠다. 그는 다음주부터는 우리 중대 자체 군중병사가 되어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확실하게 파악해서 일요일에 교회로 인솔해 갔다가 같이 예배드리고, 인원 전체가 아무 이상없이 다 자기에게 보고하고 돌아가라라고 했다.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한테 이야기하라고 했다. 옆의 직무 책상에 앉아있던 중대장이 “야 김병장, 서무계 못 발 좋구먼.”하고 웃는다. 그리고 나를 쳐다보면서 “소원이 이루어졌구나.”했다. 그날부터 중대 전 훈련병들 중에서 진짜 교회 나가는 사람만 선별해서 일요일 날이면 교회로 인솔하는 중대 자체 내 군중 인솔병사가 된 셈이었다. 그 다음 일요일에 교회 갈 사람을 찾으니 몇 명 안 나왔다. 그들은 내가 교회 가다가 맞은 것을 보고 모두 두려웠던 모양이다. 교회 가겠다고 나온 병사는 사회에 있을 때 진짜 교회를 다닌 사람인지 하나하나 파악해 보았다. 주기도문은 모두 기본이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해 보라고 했다. 그런데 아무도 암송하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모두 진짜로 교회 다닌 것이 아니라고 하니 어느 사람은 영락교회 나가다 왔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서울의 이름 있는 교회 이름을 댔다. “아무리 큰 교회에 다녔으면 뭘하느냐? 잘 믿었어야 되지.” 했다. 그 날은 전 중대 내에서 7명만 인솔해서 교회를 갔다 왔다. 갔다 와서 서무계에서 보고하니 “내가 보니 진짜들만 갔다 온 것 같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일요일마다 인솔하라고 했다. 그리고 “더 파악을 해서 정말 교인들이면 네가 알아서 데리고 나가도록 해라. 네게 맡긴다.”고 했다. 그 다음주부터는 교회 나갔던 자들이 자기 내무반의 교인들을 자세히 파악하여 가도록 했다. 그 다음 일요일에는 20여명을 데리고 나갔다. 그랬더니 남은 사람들도 모두 평소에 교회에 안 다녔던 것을 후회하면서 지금부터라도 교회에 나갈 수 없느냐고들 했다. 그 중에서 정말 다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데리고 나갔다. 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훈련소에서 교회를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윗글의 주인공은 군대에서 많은 고통을 참으면서 예배의 조건을 지켜왔습니다. 내가 주인공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 매주 예배의 조건을 쌓기 위한 나의 노력은 무엇인가요?

		날짜	2013년 9월 21일 토요일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 * 여섯 번째 날*			
교회가기 전에는 깔끔하게 단장하고 가곤 했다. 그 전날까지도 그렇게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손톱 밑에 때도 끼고 말도 못했지만, 전부 파내고, 바르는 것도 없었지만 물맞사지하고, 머리에다는 포마드바르고 가곤했다. 1주일은 이렇게, 다음 주일은 저렇게 그 다음에는 올백을 넘기고 다녔다. 그러나 거울을 쳐다보면 자신이 없었다. 나는 그 전에 한 달에 포마드 한 통 씩 샀다. 마치 동백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신랑을 맞는 입장과도 같이 그렇게 하늘을 모시고 섬겨왔다. 그렇게 하고 가면 동네 아낙들이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다가는 “야! 저기 달밤골 충각이 지나간다! 멧쟁이 지나간다!”하며 쳐다보곤 했다. 시골에서는 보통 다들 일을 하는데 양복 입고 다니면 다들 “지 애비는 일하러 가는데 저러고 다닌다.”고 욕을 하기도 했지만 예배 때는 늘 그런 마음과 정성으로 꾸미고 다녔던 것이다.	신앙인으로 나의 예배의 점수는 몇 점인지 체크해 봅시다. 1. 나는 예배시간을 늘 엄수하는 편이다. 아니다(-) 그렇다 1 2 3 4 5 2. 예배시간은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이다. 1 2 3 4 5 3. 나는 주일예배를 절대로 빠뜨리지 않는다. 1 2 3 4 5 4. 예배 때는 단정하고 깨끗하게 준비하여 다른 날보다 의복에도 신경을 쓰는 편이다. 1 2 3 4 5 5. 예배때 찬송가, 성경책, 말씀노트, 헌금 등을 미리 준비하여 참석한다. 1 2 3 4 5 6. 예배 전에 기도와 찬양, 청소 등으로 미리 준비한다. 1 2 3 4 5 7.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한다. 1 2 3 4 5 8. 나는 주일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1 2 3 4 5 9.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등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0. 이 시대에 맞는 안식일의 의미를 깨닫고 있다. 1 2 3 4 5		
	평가해 보세요. 각 문항마다 체크한 점수를 합산해 보세요. 나의 점수 ()점		
	예배자의 자세 : 신령과 진정으로 1. 예배자의 몸과 마음을 미리 준비할 것 1) 깨끗한 옷, 혐오감을 주지 않는 옷 2) 정성껏 헌금을 준비할 것 3) 단정한 차림(신발, 약세사리, 핸드백, 화장) 4) 시간 전에 예배실에 도착 5) 무엇보다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것 2. 올바른 예배자세 1) 매 해당 예배 순서에만 집중할 것 2) 말씀을 경청할 것 3) 낙서하지 말 것 4) 자세를 바르게 하고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밀어 넣을 것 5) 눈은 설교자를 바라볼 것 3. 다른 예배자에 방해되지 않도록 할 것 1) 자기 성경, 찬송가를 휴대할 것 2) 껌을 씹지 말 것 3) 신발을 벗지 말 것 4) 부채질하지 말 것 5) 다리를 꼬고 앉지 말 것		
	*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복장이나 여러 면에서 정성을 기울인 윗 글의 주인공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은 점은 무엇인가요? * 자신의 예배의 점수는 몇 점인가요? 점수를 높이기 위해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 주일날은 어떻게 지내야할지이번 QT를 통해서 결심한 것이 있다면 적어보세요~!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공적의 제단을
무시로 쌓아라 기도의 제단을
매일 매일 쌓아라 전도의 제단을
날마다 쌓아라 말씀의 제단을
어디서나 쌓아라 예술의 제단을
범사에 쌓아라 헌신의 제단을

보는 대로 쌓아라 긍휼의 제단을
부지런히 쌓아라 감사의 제단을
사는 동안에 늘 쌓아라 찬미의 제단을
청춘이 다하기 전에 쌓아라 사랑의 제단을
드높이 쌓아라 대둔산 기암절벽같이
드높이 쌓아라 저 한라산 같이